

유대인과 메시아 예언

홍 반 식
(명예교수, 구약학)

I. 평강의 왕 : 사9 : 1-6(특히 5절)

כִּי-יֵלֵךְ יְלֹד-לָנוּ בֶן-נִתָּן-לָנוּ וְהָיָה הַמְשֻׁלָּה עַל-שָׂכְמוֹ אֵל
לְאֵלָהִים אֲחֵרִים אֲלֵּי אֵל נָבוֹר אֲבִיעַד שֶׁר-שְׁלוֹם :

1. A.R.번역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2. 고대 유대인 번역

The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calls his (Hezekiah's) name the prince of Peace.

3. 유대인 Lesser의 번역

And his name is called Wonderful, Counsellor of the mighty God, of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4. 유대인 Luzatto의 번역

The mighty God - the Everlasting Father - the Prince of Peace is counselling a wonderful thing.

5.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필라델피아, 1917) 번역.

Wonderful in counsel is God, the mighty, the Everlasting Father, the Ruler of Peace.

이상 유대인 번역은 일괄적으로 본절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명칭을 וְיָלֵךְ 과

וְיָלֵךְ 에서 방관하여 메시아 사상을 제거 또는 감쇄시킨다.

1) 고대유대인 번역문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히소기야왕의)을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이 번역은 וְיָלֵךְ 로 안하고 וְיָלֵךְ 로 취하며 וְיָלֵךְ 즉 목적어 다음에 계속되는 많은 목적어 명사들을 주어로 취하는데 이는 무리한 일이다. 이 고대 번역문은 Targum, Rash, Kinchi, Malbin 등이 지지한다.

그러나 창16 : 15, 41 : 45, 4 : 51 등에 의하면 주어와 וְיָלֵךְ 동사가 선재(先在)한 다음 וְיָלֵךְ 란 목적어와 그 וְיָלֵךְ 의 내용을 밝히는 명사가 따라 나온다. 창16 : 15 וְיָלֵךְ וְיָלֵךְ וְיָלֵךְ וְיָלֵךְ. 본 절의 וְיָלֵךְ 는 Niphal로 취함이 자연스럽다. Kittel 註에 G.S.V. 모두 וְיָלֵךְ 로 번역한다.

2) Lesser의 번역

Lesser는 וְיָלֵךְ 로 취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묘한 모사라 불리우리라”라고 번역한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고자가 필요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사라는 사상은 다른 히브리 문학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3) Luzatto의 번역

본 절에 나타나는 일련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명사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다 연결한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께서 기묘한 일을 모사(충고)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지 않는다. 셈족 문서에서도 신명(神名)이 이렇게 긴 대명사로 나타나는 일이 전무하다.

기이한 일을 모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러한 요구와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 즉 지혜, 빛, 지식 등이 언급되지만 그러한 말이 없다.

4) 유대인 출판협회 번역도 메시아의 명칭을 취급한다.

וְיָלֵךְ 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격이다. וְיָלֵךְ 분사는 동사격이 아니고 문맥상 모사자, 행위자로서 나타난다.

6. 결 론

1) 문맥상 분명히 이 명사들은 וְיָלֵךְ 과 וְיָלֵךְ 에게 직결된다.

2) 이 명사들을 히소기야에게 직결시킬때 이 명사들의 내용을 약화시킨다.

- 3) 사8 : 9, 10, 17, 18에 나타난 특수희망적 예언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성취되지 않았다.
- 4) **לָדָד** 과 **לְךָ**에게 직결된 숭고한 행동들이 9장에서 다양하게 기술되었는데 이 사실들이 단순한 인간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 5) 사9 : 1, 마4 : 12~17에 인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말하고 예언서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밝힌다.

II. 고난의 증 : 사52, 53장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טַבַּעַת**는 사42 : 1-9, 42 : 18-21, 49 : 1-9, 50 : 4-11, 52 : 13-15, 53 : 1-9등이다.

- 1. **טַבַּעַת**은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자, 사역자들을 가리키는데 Abraham, Moses, David, Isaiah 등이다(시132 : 10, 105 : 6, 105 : 26, 사20 : 3등).
- 2. 집합명사로서는 Israel, Jacob을 지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עַבְדֵי**라고 한 예는 사4 : 1, 2, 45 : 4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טַבַּעַת**라고 칭한 성구도 있다.
- 3. 개인으로서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사52 : 13-53 : 12의 **הֲוֵהָהּ? טַבַּעַת**은 고난의 증으로서 메시아를 지칭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를 예언함에 있어서 9장에서 왕적표현으로 **בְּשֵׁלוֹשׁ**을 제시하고 사52-53장에서 고난의 증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대속의 구주로서 예언한다.
- 4. 유대인의 견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טַבַּעַת**, 특히 52-53장의 고난의 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결하고 집합명사로 취하여 야곱으로 취한다. 사53장에 표현되는 **טַבַּעַת**의 고난을 대속의 고난으로 보지 않고 순교자 내지 순국자의 민족적고난으로 본다. 특히 이사야 53장에 거듭 나타나는 **הֲוֵהָהּ** (3.s.m)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유대인은 **הֲוֵהָהּ**를 야곱으로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집합명사로 취한다. 유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야 5장에서 **הֲוֵהָהּ**가 거듭 언급되는 동시에 **בְּרִבְּרֵי** (1인칭 접속사)가 언급되는 점과 대속의 언사(言詞)가 명확한 사실이다.

사53 : 4

אֲכַן חֲלִינֵנוּ הוּא נֶשָׂא וּמִכָּאֲבִינֵנוּ סְבָלָם וְאַנְהָנוּ

חֲשַׁבְנוּהוּ נֹנֵעַ מִכָּה אֱלֹהִים וּמַעֲנֶה:

한글번역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본 절에 분명하게 고난의 증으로서의 **הֲוֵהָהּ**가 **אֲנִי**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사실이 드러난다. 대속의 사상이 나타난다. 53장 전 장에 나타나지만 특히 53 : 4과 53 : 5에서 특히 표현된다.

사53 : 5

וְהוּא מְחַלְלֵי מִפְּשָׁעֵנוּ מְדַבֵּר מֵעֹנֹ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רָתוֹ נִרְפָּא לָנוּ:

한글번역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본절에서는 **הֲוֵהָהּ**와 **אֲנִי**의 명확한 제시가 유대인의 견해를 어렵게 만든다. 여기 **הֲוֵהָהּ**가 유대인이란 **אֲנִי**는 누구인가? 필자가 유대인 학교에서 수학기 유대인 교수에게 이 두개의 인칭대명사에 대하여 **הֲוֵהָהּ**가 유대인이란 **אֲנִי**는 누구인가하고 질문했을 때 교수는 그것은 대단히 교활한 질문이라고 했다. 유대인은 답을 줄 수가 없다.

대속의 사상은 6절에서 더욱 드러난다.

사53 : 6

כָּלֵנוּ כִּצְאֵן תְּלֵ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נוּ וַיְהִי הַפְּגִיעַ בּוֹ אֶת עֵוֹן כָּלֵנוּ:

한글번역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אִישׁ לְדַרְכּוֹ פָּנֵנוּ**는 메시아의 죽음이 단순히 희생자의 죽음이나 순교자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임을 역설한다.

III. 다시 오실 메시아

슌12 : 10

וּשְׁפַכְתִּי עַל-בֵּית דָּוִד וְעַל יוֹשְׁבֵי יְרוּשָׁלַם רִיחַ חַן

וְתַחֲנוּנֵימִי וְהִבִּיטוּ אֵלַי אֶת־אֲשֶׁר־דָּגְרוּ וְסָפְרוּ עָלַי כְּמִסְפֵּר
 64- תְּחִיד וְהִמְרֵ עָלַי כְּהִמְרֵ עַל־הַבְּכוֹר :

한글번역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원문에 אֵלַי,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성구연구 אֵלַי וְהִבִּיטוּ אֵלַי אֶת־אֲשֶׁר־דָּגְרוּ וְסָפְרוּ עָלַי, א. פ. תְּחִיד וְהִמְרֵ עַל־הַבְּכוֹר : 간구(from) אֵלַי in Hithpael implore applicat favour 간구한다.

본 성구는 고난당한 메시아와 그 동일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사실을 예언하는 구약의 명성구이다. 본 절의 말하는 자는 하나님임이 분명한데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אֵלַי) 바라보고”란 말은 찔림받은 메시아가 즉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다. 한글번역이 여기 אֵלַי 를 그 뒤에 나오는 עָלַי 즉 הוּא 절미어와의 조화를 위해 אֵלַי 로 번역한 것은 다른 방안들로 번역된 것을 따른 것인데 과도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사실에 있어서 50 사본이 אֵלַי 를 אֵלַי 로 하며 마소라 본문(MT)에서도 Qere에서는 אֵלַי 로 안한다. 그러나 히브리문학에 있어서 특히 선지적 예언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칭변화는 흔히 있는 일이다.

신약에서의 언급에 있어서 요19: 37과 계1: 17이 공히 אֵלַי 로 취급 번역한다.

하여간 이 구절은 찔림받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사상을 제시하는 구약 중 가장 명확한 구절이다.

유대인의 견해

유대교에서는 속12: 10의 찔림받은 이를 나사렛 예수에다 연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의견은 Gerald Sigal이 제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는 그의 저서 “The Jew and the Christian Missionary; A Jewish Response to Missionary Christianity(New York, 1981)에서 속12: 10의 אֵלַי 와 אֵלַי 를 나사렛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Sigal의 해석은 여기 바라보는 자도 이방인이고 그 대상은 문자 그대로 אֵלַי, 즉 하나님이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찔렀다는 말이며 그 찌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여기 찌른다는 동사 אֵלַי 을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에 나오는 עָלַי, 그를 위하여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אֵלַי 동사는 예리한 칼이나 창으로 몸을 찔러 죽이는데 사용하는 칼로써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조화를 이루며 이 구절은 분명히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재림을 선포하는 말이다. 특히 본 절의 말하는 자는 אֵלַי: 임이 분명하다.

본절 초두에 나타나는 אֵלַי, 내가 부어주리니, 즉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란 말의 주어는 אֵלַי 일 수 밖에 없으니 첫째 찔림받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사실과 둘째 찔림받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즉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

참고문헌

- David Berger and Michael Wyschogrod, *Jews and Jewish Christianity*(1978).
- Joachim Becker, *Messianic Expectation in the Old Testament*, trans David Green(1980).
- Geral Sigal, *The Jew and the Christian Missionary*(1981).